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특성 및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민 하 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I.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독일의 동화 브레멘의 음악대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노년기에 접어든 동물들이다. 동화는 나이 들어 주인에게 버림받은 당나귀와 개, 고양이, 닭이 새 삶을 살기 위해 브레멘으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재치와 용기를 발휘하여 도둑을 물리친 후 원하는 음악가로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브레멘의 음악대에서 나오는 노년의 동물들은 전혀 나약하지도 않으며 의존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이 동화에 서처럼 건강한가? 이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라도 하듯 가족의 기본단위가 부와 모 그리고 자녀로 인식되는 사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가족 구성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조부모에 관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조부모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년기 삶이 인간의 전 생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생 후기의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년의 사회적 역할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가족 내 노인의 역할 의미에 대한 재조명과 관심이 사회영역과 학문영역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 연방 차원의 조부모 날 제정 등이 사회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관심의 예라 한다면 조부모의 역할 수행 및 개념(박화윤, 이영숙, 1999; Cherlin & Furstenberg, 1985), 그리고 조부모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연구(Aldous, 1995; Neikrug, 2000)의 활성화는 학문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관심의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 해체의 증가 및 재혼 가정의 증가, 미혼부모의 증가,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손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조부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조부모의 양육 부담 및 문제에 대한 연구, 조부

모의 양육 부담, 대리부모로서의 조부모의 법적 지위 및 성인자녀의 이혼 전 형성된 조부모로서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연구(최해경, 2002; Crnic & Greenberg, 1990; Jendrek, 1993; Smith, Beltran, Butts, & Kingson, 2000; Smith, Savage-Stevens, & Fabian, 2002)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셋째, 영유아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결혼한 성인자녀의, 또는 장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성인자녀의 주요 사회적 지지망으로 노년기 부모가 재조명(Barranti, 1985; Heller, Heieh, & Rowitz, 2000; Myers, & Williams-Petersen, 1991)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조명에 따라 의존적이고 나약하며 생산성이 떨어진 ‘뒷방 늙은이’이라는 냉소적 시각에서 벗어나, 가족 안에서 여전히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가족 자원으로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조부모에 관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조부모라는 가족내 역할 지위 및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조부모라는 가족내 역할 지위 부여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손자녀와 관련시켜, 조부모의 존재가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역할과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려는 연구(민하영, 유안진, 1996; 장희경, 조병은, 1995)는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화 및 도시화 그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significance others)으로 조부모의 위상과 역할은 상당히 퇴색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의 심리·정서적 적응 및 발달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부모에 관한 변인을 가족환경 변인 안에서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양육의 주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아동양육 및 발달에 있어 조부모의 역할을 간과해온 것은 자연스런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손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없으나, 조부모는 전통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 2양육자, 대리 부모로 고려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경우 ‘할머니의 빈젓 빨리기’와 같은 양육 풍습과 세강달강 민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조부모는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 특히 심리·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유안진, 1989).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핵가족이나 기능적으로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조부모의 영향을 간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주요 사회적 관계망 안에 존재하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조부모가 아동의 성장 및 발달, 특히 심리적 적응에 어떤 역할과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특정의 문제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지지망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연적 지지망인 가족이나 친척 안에서 쉽게 나타난

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조부모와의 관계를 부모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령기 아동(Furman & Buhrmester, 1985))은 가족이라는 자연적인 사회적 지지망 안에서 조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으며, 경험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민하영, 유안진, 1996) 뿐 아니라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또는 발달은 대부분 아동과 부모의 관계 측면에서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아동의 심리적 적응 및 발달의 주요 지표로 간주되는 우울 성향과 관련시켜 살펴보고, 학령기 아동의 우울 성향에 대한 주요 설명변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질적인 관계가 중간세대인 어머니에 의해 중재되는 것(박경란, 1994; Kennedy, 1992; Whitbeck, Hoyt, & Huck, 1993)처럼, 손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조부모의 영향력이 어머니에 의해 중재되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조부모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조부는 '외무장관'으로 조모는 '내무장관' 또는 '양육 대행자', '정서적 친밀감의 제공자', 가족원간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친족 유지자'로 언급될 만큼 조모는 아동과 심리적으로 밀접히 연결(Creasey & Koblewski, 1991; Jendreck, 1993)되었을 뿐 아니라, 손자녀 또한 조부보다 조모에게 더욱 큰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Creasey & Koblewski, 1991; King & Elder, 1995; Kivett, 1991).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둔 이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영향력을 조모와 외조모에 한정하여 살펴봄으로써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조부모의 역할과 영향을 좀더 효율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 형성 및 조부모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조모/외조모의 연령(Aldous, 1995), 학력(박의순, 조병은, 1990), 동거여부(백문화, 조병은, 1992; King & Elder, 1997), 경제상황, 건강(서동인, 1989; Creasey & Kaliher, 1994), 방문접촉(Creasey & Kaliher, 1994), 전화연락(Creasey & Koblewski, 1991), 모-조모/외조모(어머니-시어머니/친정어머니)의 심리적 친밀감(박경란, 1994; Crosnoe & Elder, 2002; Kennedy, 1992; King & Elder, 1995; Rossi & Rossi, 1990; Whitbeck, Hoyt, & Huck, 1993)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 또는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은 학령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교육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손자녀에 대한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는 조모/외조모의 연령, 학력, 동거여부, 경제상황, 건강, 방문접촉, 전화연락, 조모/외조모-모의 심리적 친밀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의 손자녀에 대한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의 해결은 학령기 아동의 손자녀와 성공적인 조모/외조모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조모/외조모에게, 그리고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 자료 및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조부모-손자녀 관계 형성이나 조부모-손자녀 세대의 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획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청소년기 손자녀의 경우 사회 관계망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확대로 또래와의 유대감을 더욱 발달시키면서 조부모와의 친밀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Creasey & Kaliher, 1994; Troll, 1983).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경우 조부모를 부모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할 만큼 조부모를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Furman & Buhrmester, 1985).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모나 외조모가 손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능동적 역할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청소년기 이전 학령기 아동의 손자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 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및 그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275명으로 이중 5학년이 136명, 6학년이 139명이며 남아 156명, 여아 119명이다. 연구대상 아동 중 조모가 있는 아동은 219명, 외조모가 있는 아동은 24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모와 외조모가 모두 살아계신 아동은 192명이며, 조모 생존, 외조모 사망인 경우가 27명, 조모 사망, 외조모 생존인 경우가 56명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특성 및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조모/외조모의 사회적지지, 아동의 우울성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자녀의 조모/외조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조모/외조모(시아머니/ 친정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친밀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박지원(1989)과 성영혜(1993)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지 문항을 추가 보완하였다. 정서적 지지 4문항, 정보적 지지 4문항, 평가적 지지 4문항, 물질적 지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양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실제로 제공된 지지의 양보다 개인이 지각한 지지의 양이 적응이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obow & Tisak, 1989). 16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조모 및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각 .93, .94로 나타났다.

2) 우울 성향 척도

학령기 아동의 우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1)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CDI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우울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 평정 척도로, 우울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 정서(5문항), 행동장애(7문항), 자기비하(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우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세 문장으로 구분된 증세를 제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 '나는 가끔 슬프다(0점)', '나는 자주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프다(2점)'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세 문장 중에서 지난 2주간 경험한 증세를 가장 잘 표시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위는 점에서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 성향을 나타낸다. 16문항으로 구성된 CDI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는 .75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공인숙, 1989; 박영애, 1995)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한 후, 3인의 아동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예비 조사를 통하여 질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15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15점부터 60점 사이의 응답가능 점수 중 점수가 낮을수록 수용적이거나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했다. 척도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4) 조모와 외조모(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친밀도

Olson, Porter 그리고 Bell(1982)의 가족의 응집과 평가 척도(FACE II) 중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에 관한 문항 및 강완숙(2000)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에 관한 측정 문항 등을 참조하여 조모와 외조모(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친밀도 측정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척도는 3인의 아동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예비 조사를 통하여 질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조모, 외조모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 .86으로 나타났다.

3. 조사 절차

대구시 소재 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 5, 6학년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시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아동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교실에서 응답이 끝난 후 수거했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한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실한 응답을 기재한 경우, 어머니와 아동이 쌍을 이루지 못한 경우, 조모와 외조모 모두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275쌍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9.0프로그램의 t검증, 일원변량분석, Scheffe' 검증,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손자녀에 대한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는 조모/외조모의 연령, 학력, 동거여부, 경제상황, 건강, 방문접촉, 전화연락, 조모/외조모-모의 심리적 친밀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학령기 아동의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사회적 지지는 조모의 연령과 학력, 동거여부, 경제상황 및 건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모의 손자녀 지지역할이 연령, 건강, 경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다고 보고한 서동인(1991)의 연구결과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조모와의 동거 유무가 관계없다는 장희경, 조병은(1995)의 연구결과 및 조부모에 대한 유대감이 동거 유무와 관계 없다고 보고한 박의순, 조병은(19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의 사회적 지지는 방문접촉($F(2,203)=4.25, p<.05$) 및 전화연락($F(2,156)=4.99, p<.01$)에 따라,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친밀감($F(2,197)=7.7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방문접촉이 일주일에 1-2회 이상 집단의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조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높이 지각하고 있었으며, 전화연락을 통한 조모와의 접촉이 많은 집단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동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각적 접촉이나 전화 접촉이 조부모와의 관계에 중요한 요인이라 지적한 Creasey와 Koblewski(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한편 시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을 낮게 지각하는 어머니의 아동 집단은 그렇지 않은 아동 집단에 비해 조모로부터의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감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친밀감이나 유대감이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선행연구(박경란, 1994; Crosnoe & Elder, 2002; Kennedy, 1992; King & Elder, 1995; Rossi & Rossi, 1990; Whitbeck et al., 1993)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모의 사회적 지지의 경우 방문접촉과 전화연락 및 조모(시어머니)와 어머니의 관계 중 조모와 어머니에 의해서 유의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제공은 1차적으로 조모와 어머니의 관계 향상을 통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모의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조모의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인으로, 방문접촉, 전화연락, 조모에 대한 어머니의 친밀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F(3, 148)=10.15, p<.01, R^2=.17$). 분석결과, 조모에 대한 어머니의 친밀감($\beta=.34, p<.001$)만이 조모의 사회적

(표 1) 조모의 연령, 학력, 동거여부, 경제상황, 건강, 방문접촉, 전화연락 및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심리적 친밀감에 따른 조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변수	집단 구분	조모의 사회적 지지 평균 및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사회적 지지
연령	65세 미만(42)	13.28(3.11)	12.84(3.32)	13.93(3.37)	13.65(3.50)	53.38(11.42)
	65-69(70)	13.85(3.09)	13.00(3.38)	13.99(3.34)	14.14(3.24)	55.10(12.12)
	70-74(43)	14.27(3.63)	13.29(3.72)	14.43(3.39)	14.25(3.69)	55.98(13.38)
	75세 이상(52)	14.17(3.30)	13.26(3.84)	14.32(3.57)	14.40(3.39)	56.35(12.79)
	F값	.83(3,211)	.18(3,213)	.26(3,208)	.41(3,209)	.50(3,203)
학력	무학(68)	14.14(3.26)	13.13(3.67)	14.38(3.42)	14.35(3.43)	55.84(12.47)
	초졸(93)	13.98(3.45)	13.31(3.54)	14.20(3.45)	14.08(3.60)	55.82(12.93)
	중졸이상(24)	12.68(2.91)	12.31(3.74)	13.81(3.54)	14.00(3.20)	52.17(12.13)
	F값	1.90(2,189)	.79(2,191)	.26(2,186)	.15(2,188)	.82(2,182)
동거	동거함(24)	13.80(2.87)	13.16(3.33)	14.64(3.30)	14.71(3.01)	55.04(10.56)
	동거 않음(183)	13.92(3.32)	13.08(3.57)	14.09(3.41)	14.18(3.46)	55.27(12.63)
	t 값	-.17	.10	.77	-.64	-.09
경제 상황	경제 의존(58)	13.46(4.01)	12.23(4.16)	13.71(4.07)	13.35(3.91)	53.09(14.77)
	경제 독립(149)	14.07(2.93)	13.42(3.22)	14.32(3.11)	14.43(3.16)	56.09(11.26)
	t값	-1.07	-1.99	-1.04	-1.91	-1.40
건강	건강 불편(29)	14.23(3.20)	13.34(3.79)	14.60(3.07)	14.29(3.54)	57.38(12.19)
	건강 양호(136)	13.77(3.15)	13.10(3.42)	14.04(3.41)	14.01(3.25)	54.69(11.91)
	매우 건강(42)	14.10(3.69)	12.86(3.80)	14.21(3.64)	14.40(3.87)	55.57(14.04)
	F값	.33(2,212)	.17(2,214)	.35(2,209)	.26(2,210)	.58(2,204)
방문 접촉	매일~일주일 1-2회(59)	14.92(2.85)a	13.87(3.39)a	15.11(3.03)a	14.67(3.06)	58.32(11.01)a
	한달 1-2회(65)	14.05(3.08)ab	13.22(3.39)ab	14.23(3.20)ab	14.33(3.20)	56.05(11.33)ab
	명절 등 일년 3-4회 (82)	13.06(3.50)b	12.46(3.68)b	13.37(3.65)b	13.58(3.76)	52.39(13.64)b
	F값/ Scheffe'	6.22(2,211)**	3.00(2,213)*	4.85(2,208)***	1.98(2,209)	4.25(2,203)*
전화 연락	거의 매일 ~일주일 1-2회(58)	15.13(2.69)a	14.36(3.17)a	15.57(2.75)a	15.31(2.79)a	60.31(10.40)a
	한달 1-2회(61)	14.11(3.22)ab	13.25(3.37)ab	14.75(3.04)ab	14.77(3.31)ab	56.85(11.46)ab
	생신 등 일년5-6회(40)	13.60(2.99)b	12.50(3.54)b	13.33(2.94)b	13.43(2.86)b	53.23(11.02)b
F값/ Scheffe'	3.65(2,163)*	4.14(2,165)*	7.14(2,160)***	5.01(2,162)**	4.99(2,156)**	
친밀 감	친밀감 높음(56)	14.72(2.93)a	13.77(3.33)a	14.74(3.37)a	14.62(3.42)a	57.88(11.96)a
	중간(86)	14.15(3.11)a	13.56(3.21)a	14.49(3.02)a	14.55(2.86)a	56.81(10.60)a
	낮음(58)	12.60(3.60)b	11.48(3.84)b	12.97(3.89)b	12.90(3.99)b	49.86(14.20)b
	F값/ Scheffe'	7.11(2,205)***	8.54(2,206)***	4.93(2,201)**	5.20(2,202)**	7.75(2,197)***

주) * p<.05, ** p<.01, *** p<.001

주) 연령 집단은 노인복지법에서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함을 토대로 65세를 기준으로 5년 범주로 집단 구분함.

조모-모 심리적 친밀감 집단은 평균±(0.5×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집단 구분함.

(표 2) 조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중회귀분석(n=152)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모의 사회적 지지	
		B	β
상수		32.02(4.77)	
방문접촉		.66(1.09)	.02
전화연락		1.78(1.15)	.14
조모에 대한 어머니의 친밀감		.74(.16)	.34***
F값		10.15**(3, 148)	
R ²		.17	

주) **p<.01, *** p<.001

지지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가 지각한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는 외조모의 연령과 동거, 외조모의 경제 상황과 건강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친밀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모와 달리 외조모의 경우 외조모-모와의 심리적 친밀감에 따라 외조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조모의 경우 손자녀에 대한 감정 표현은 딸에 대한 감정과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Thompson과 Walker(1987)의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외조모는 손자녀에 대한 감정을 딸에 대한 감정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친밀감에 구애됨 없이 외조모는 손자녀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손자녀가 지각한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는 외조모의 학력(F(2,228)=4.36, p<.05), 방문접촉(F(2,237)=5.94, p<.01) 및 전화연락(F(2,179)=7.2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외조모의 학력이 무학보다 중졸 이상인 경우, 외조모에 대한 방문접촉이 일주일에 1-2회 이상 아동 집단이 그렇지 못한 아동 집단에 비해, 전화를 통한 외조모와의 접촉이 많은 아동 집단이 그렇지 않은 아동 집단에 비해 외조모로부터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조모의 학력, 방문접촉과 전화연락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전화연락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각적 또는 전화연락을 통한 접촉이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지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화연락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Creasey와 Koblewski(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외조모의 연령, 학력, 동거여부, 경제상황, 건강, 방문접촉, 전화연락 및 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의 심리적 친밀감에 따른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변수	집단 구분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평균 및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사회적 지지
연령	65세 미만(85)	14.74(3.22)	14.13(3.08)	14.35(3.22)	14.62(3.37)	57.91(11.77)
	65-69(73)	14.78(2.95)	13.73(3.11)	14.38(3.13)	14.22(3.32)	57.14(11.15)
	70-74(51)	13.98(3.69)	13.25(3.93)	13.53(3.89)	13.61(3.66)	54.37(14.22)
	75세 이상(32)	14.59(3.04)	14.27(3.51)	14.79(3.84)	14.94(3.32)	58.53(12.70)
	F값	.76(3,238)	.95(3,240)	1.08(3,239)	1.34(3,240)	1.10(3,237)
학력	무학(53)	13.79(3.05)a	13.28(3.44)	13.30(3.47)a	13.13(3.22)a	53.51(12.27)a
	초졸(136)	14.60(3.15)ab	13.80(3.67)	14.29(3.42)ab	14.48(3.43)ab	57.18(12.29)ab
	중졸이상(42)	15.44(3.52)b	14.81(3.11)	15.29(3.35)b	15.28(3.30)b	60.93(11.84)b
	F값/ Scheffe'	3.12*(2,229)	2.56(2,231)	3.70*(2,230)	5.15**(2,231)	4.36*(2,228)
동거	동거함(10)	15.20(2.82)	15.00(2.67)	15.00(3.40)	15.20(3.94)	60.40(10.52)
	동거 않음(231)	14.55(3.24)	13.79(3.37)	14.22(3.45)	14.28(3.40)	56.86(12.35)
	t 값	.63	1.13	.71	.83	.89
경제 상황	경제 의존(44)	13.84(3.58)	12.64(3.54)	12.84(3.55)	13.27(3.47)	52.59(12.76)
	경제 독립(169)	14.94(2.95)	14.32(3.14)	14.73(3.18)	14.78(3.25)	58.81(11.34)
	t값	-2.09	-3.09	-3.43	-2.71	-3.16
건강	건강 불편(52)	13.87(3.10)	12.98(2.98)	13.19(3.10)	13.75(3.16)	53.79(11.24)
	건강 양호(154)	14.87(3.10)	14.19(3.22)	14.51(3.40)	14.57(3.26)	58.16(11.79)
	매우 건강(33)	14.09(3.72)	13.44(4.19)	14.48(3.86)	13.88(4.33)	55.91(15.15)
	F값	2.32(2,237)	2.86(2,239)	3.02(2,238)	1.42(2,239)	2.63(2,236)
방문 접촉	매일~일주일 1-2(49)	15.59(3.27)a	14.92(3.38)a	14.98(3.74)a	15.20(3.99)	60.69(13.06)a
	한달 1-2회(78)	14.97(3.01)ab	14.38(2.95)b	14.91(3.17)b	14.40(3.17)	58.79(11.18)b
	명절 등 일년 3-4회(113)	13.93(3.12)b	13.05(3.38)b	13.53(3.31)b	13.89(3.29)	54.35(12.05)b
	F값/ Scheffe'	5.67(2,238)**	7.19(2,240)***	5.33(2,239)**	2.57(2,240)	5.94(2,237)**
전화 연락	거의 매일 ~일주일 1-2회(56)	15.88(3.05)a	14.97(3.57)a	15.61(3.61)a	15.53(3.71)a	62.25(12.79)a
	한달 1-2회(80)	15.13(2.52)ab	14.49(2.81)ab	15.03(2.57)a	14.94(2.99)ab	59.58(9.44)a
	생신 등 일년 5-6회(46)	13.87(3.43)b	13.13(3.23)b	13.30(3.55)b	13.52(3.11)b	53.83(12.17)b
F값/ Scheffe'	6.00(2,180)**	4.55(2,181)*	7.16(2,180)***	5.07(2,181)**	7.29(2,179)***	
친밀 감	친밀감 높음(69)	14.60(3.46)	14.06(3.27)	14.19(3.49)	14.44(3.48)	57.32(12.83)
	중간(91)	14.54(3.23)	13.46(3.70)	14.11(3.61)	14.28(3.77)	56.44(12.92)
	낮음(77)	14.48(3.05)	14.01(2.98)	14.35(3.25)	14.26(2.99)	57.05(11.24)
	F값	.03(2,235)	.85(2,237)	.10(2,236)	.06(2,237)	.11(2,234)

주) * p<.05, ** p<.01, *** p<.001

주) 연령 집단은 노인복지법에서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함을 토대로 65세를 기준으로 5년 범주로 집단 구분함.

조모-모 심리적 친밀감 집단은 평균±(0.5×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집단 구분함.

(표 4)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독립변인의 중회귀분석(n=177)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B	β
상수		49.32(3.04)	
외조모 학력		3.39(1.32)	.19*
방문접촉		.66(1.20)	.04
전화연락		3.65(1.04)	.28***
F값		8.36***(3, 170)	
R ²		.13	

주) *p<.05, *** p<.001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인으로, 외조모 학력, 방문접촉과 전화연락을 독립변인

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F(3, 170)=8.36, p<.001, R²=.13). 분석결과, 외조모 학력(β =.19, p<.05)과 전화연락(β =.28, p<.001) 중 전화연락의 상대적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의 손자녀에 대한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조모의 사회적 지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모의 사회적 지지(β =-.22, p<.01)는 아동의 우울 성향을 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96)=9.59, p<.01, R²=.05). 그러나 2차 분석 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될 경우(F(2, 195)=24.69, p<.001, R²=.20), 아동의 우울 성향의 설명력은 20%로 증가하지만 아동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β =-.40, p<.001)과 달리 조모의 사회적 지지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동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조모의 사회적 지지 영향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중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β =-.20, p<.01)는 아동의 우울 성향을 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32)=9.18,

$p < .01$, $R^2 = .04$). 그러나 2차 분석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될 경우($F(2,231) = 21.05$, $p < .001$, $R^2 = .15$), 아동의 우울 성향의 설명력은 15%로 증가하지만 아동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beta = -.37$, $p < .001$)과 달리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동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영향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중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조모,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는 모두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령기 아동의 우울 성향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어머니 세대에 의해 중재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박경란, 1994; Crosnoe & Elder, 2002; Kennedy, 1992; King & Elder, 1995; Rossi & Rossi, 1990; Whitbeck et al., 1993)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조모의 사회적 지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위계적 중회귀분석($n=198$)

독립변수	종속변수	1차 분석		2차 분석	
		B	β	B	β
상수		12.02(1.24)		23.26(2.15)	
조모의 사회적 지지		-6.85E-02(.02)	-.22**	-4.04E-02(.02)	-.13
어머니의 양육행동				-.26(.04)	-.40***
F값		9.59**(1,196)		24.69*** (2,195)	
R ²		.05		.2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6) 학령기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위계적 중회귀분석($n=234$)

독립변수	종속변수	1차 분석		2차 분석	
		B	β	B	β
상수		11.53(1.18)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6.11E-02(.02)	-.20**	-6.85E-02(.02)	-.06
어머니의 양육행동				-.24(.04)	-.37***
F값		9.18**(1,232)		21.05*** (2,231)	
R ²		.04		.15	

주)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대구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275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특성 및 학령기 아동 손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영향력을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조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조모/외조모에 대한 방문접촉, 전화연락, 조모와 모의 심리적 친밀감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조모와 모의 심리적 친밀감이 조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강화를 위한 가족 자원으로 조모의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조모와 모의 심리적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 조모 또는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는 방문접촉, 전화연락 등 조모/외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을 통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모 또는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모/외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 기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직장 중심의 거주 문화에 따른 지리적 거리에 의해, 조모/외조모와 손자녀간의 면대면 접촉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외조모의 학력, 방문접촉 및 전화연락 가운데 전화연락이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화연락은 조모/외조모와 손자녀간의 접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용한 문명의 이기(利器)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명의 이기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핵가족 상의 한계점이나 지리적 거리 상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지리적 거리는 세대간 관계를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으나(Hogan, Eggeben, & Clogg, 1993), 전화연락 등을 통한 상호작용은 면대면(face to face) 방문접촉 만큼이나 세대간 관계 유지에 있어 중요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제 1의 정보통신망 구축 국가인 점을 활용하여 전화 연락을 통한 접촉 외에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상의 접촉을 모색하고 시도해 보는 것도 조부모 - 손자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적 방안의 하나로 적극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조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또는 외조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이라 할 수 있는 우울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조모 또는 외조모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경우 아동의 우울 성향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

다는 연구결과(Lin et al., 1999)와 일치하며 조부모와의 접촉이 많은 확대 가족의 아동이 핵가족의 아동에 비해 정서, 행동 문제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황혜정, 1994)와 유사하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우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모 또는 외조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중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자녀에 대한 조모나 외조모의 높은 사회적 지지는 학령기 아동 손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되, 조모나 외조모의 높은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높여줌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높여주는 간접적 형태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학령기 아동 손자녀에 대한 조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가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학령기 아동의 높은 심리적 적응에 유용한 가족 자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조모나 외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 입장에서 평가할 경우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시어머니 또는 친정 어머니의 간접적 지원 요소라 할 수 있다. 손자녀에 대한 조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가 많다는 것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이거나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 의해 지원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과 보완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이끌도록 측면 지원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높은 심리적 적응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손자녀에 대한 조모 또는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가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힌 이 연구는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확대 가족안에서 존중되었던 조모-손자녀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Crosnoe & Elder, 2002)과 더불어 상징적이며 의례적 또는 주변적 존재에서 벗어나 학령기 아동 손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당당한 지지자로, 가족 자원으로, 가정 환경 변인으로 조모/외조모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행복한 노후 설계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노년에 얻게 되는 조모 또는 외조모라는 가족내 역할이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양육자의 역할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망안에서 손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조모나 외조모가 행복한 노년, 성공적인 노년일 수 있는 것은 핵가족이라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모(grand mother)로써 위대한 어머니(grate mother)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지지자로 손자녀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미있는 조모 또는 외조모의 역할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한 방법은 손자녀와의 적극적인 상호 접촉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직접적인 접촉이 어렵다면, 전화통화 등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적극성을 갖는다면 인터넷이라는 새

로운 상호작용 방법을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든든한 후원자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 손자녀에게 사회적 지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받으려는 노력도 시도해 볼 만하다. 아마도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1-3세대 조모/외조모 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된다면, 학령기 손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조모/외조모에게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손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과 발달을 간접적으로나마 성공적으로 적극 지원해주려고 노력할 때 조모나 외조모의 노후는 전체 가족안에서 의미있어지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조모/외조모의 영향만을 살펴봄으로써 조부모의 영향력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덕성이나 공평성 또는 자기 통제 등 사회적 규범과 관련한 학령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가족내 ‘훈계자’이며 ‘외무장관’으로 표현되는 조부 또는 외조부와 연결시켜 살펴보았으면 한다. 아마도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조부/외조부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영향력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재조명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완숙(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 - 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의 소외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유안진(1996).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279-294
- 박경란(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중,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4(2), 74-89.
- 박영애(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의순, 조병은(1990). 청소년기 손자녀가 지각한 각 조부모와의 유대감. **가족학 논총**, 2, 28-62.
- 박지원(1989).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화윤, 이영숙(1999).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21-41.
- 백문화, 조병은(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 서동인(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 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45-60.
-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박경란(2000). 청소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6.
- 이인수(2001). 대학생이 느끼는 조부모의 도움. **한국노년학**, 21(1), 131-145.
- 장희경, 조병은(1995). 맞벌이 가족의 조모-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

- 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6(1), 211-224.
-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3.
- 최해경(2002). 저소득층 조손가족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황혜정(1994). 가족구조가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2), 195-212.
- Aldous, J. (1995). New views of grandparents in intergenerational context.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16(1), 104-122.
- Barranti, C. C. R. (1985).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Family resource in an era of voluntary bonds. *Family Relations*, 34, 343-352.
- Cherlin, A. J., & Furstenberg, F. F., Jr.(1986). *The new american grandparent: A place in the family, a life apart*. NY: Basic Books.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01(3), 393-403.
- Creasey, G., & Kaliher, G. (1994). Age differences in grandchildren's perceptions of relations with grandparents. *Journal of Adolescence*, 17, 411-426.
- Creasey, G., & Koblewski, P. J. (1991). Adolescent grandchildren's relationships with maternal and paternal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Journal of Adolescence*, 14, 373-387.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osnoe, R. & Elder, G. H. Jr. (2002). Life course transitions, the generational stake, and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1089-1096.
- Dubow, E. F. & Tis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 *Child Development*, 69, 1412-1423.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Heller, T., Hsieh, K., & Rowitz, L. (2000). Grandparents as support to mothers of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Work*,

33(4), 23-34.

- Hogan, D. P., Eggebeen, D. J., & Clogg, C. C. (1993).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s i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1428-1458.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 Addison-Wesley.
- Jendre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09-621.
- Kennedy, G. E. (1992). Quality in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5(2), 83-98.
- King, V. & Elder, G, H. Jr. (1995). American children view their grandparents: Linked lives across three rural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165-178.
- King, V. & Elder, G, H. Jr. (1997). The legacy of grandparenting: childhood experiences with grandparents and current involvement with grand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848-859.
- Kivett, V. R. (1985). Grandfathers and grandchildren: Patterns of association, helping, and psychological closeness. *Family Relations*, 34, 565-571.
- Kovacs(1981). Rating scales to acc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Lin, N., Ye, X., & Ensel, W. M.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344-359.
- Myers, B. A., & Willams-Petersen, M. G. (1991). Beliefs and memories about child-rearing across generations: Mothers and grandmothers of one-year old infan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7, 111-128.
- Neikrug, S. M. (2000). A new grandparenting: Dialogue and covenant through mentor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Work*, 33(3), 103-117.
- Olson, D. H., Porter, J., & Bell, R. (1982). FACE II, in D. H. Olson, H. I. McCubin, H. Barnes, H., A. Larsen, A., M. Muxen, M., & M. Wils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N.: Univ. of Minnesota.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Y: Aldine de Gruyter.
- Silverstein, M. & Long, J. D. (1998). Trajectories of grandparents' perceived solidarity with adult grandchildren: A growth curve analysis over 23

-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912-923.
- Smith, C. J., Beltran, A., & Kingson, E. R. (2000).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Emerging program and policy issues for 21st centur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Work*, 34(1), 81-94.
- Smith, G. C., Savage-Stevens, S. E., & Fabian, E. S. (2002). How caregiving grandparents view support groups for grandchildren in their care. *Family Relations*, 51, 274-281.
- Troll, L. E. (1983). Grandparents the family watchdog.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pp. 63-74). Beverly Hills, CA: Sage.
- Whitbeck, L. B., Hoyt, D. R., & Huck, S. M. (1993). Family relationship history, contemporary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1025-1035.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외조모의 사회적지지 특성 및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김 영 주(울산대학교 교수)

가족내 노인의 역할 의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민하영선생님의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특성 및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논문을 잘 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확대됨에 따라, 또한 취업모의 증가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 해체의 증가로 인한 조부모 양육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조부모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부모의 연구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가족내 역할 지위 및 기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부모의 존재가 손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연구로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방문접촉, 전화연락, 조모와 모의 심리적 친밀감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으며,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는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중 하나인 우울성향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손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존재라고 설명하신 것에 일차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몇가지 질문 겸 토론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논문에서 조모나 외조모가 행복한 노년, 성공적인 노년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조모로서 위대한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지지자로 손자녀 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조모나 외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인 노화를 담보할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부산 광역시 노인 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중에서 비동거 이유로 따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응답하는 동거이유 중에서 가

장 비율이 높은 것이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 것을 볼 때, 노인들이 바라는 행복한 노년이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 역할보다는 자녀와 떨어져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즘 새로운 소비자로서 신세대 노인(가족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해방된 노인층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픈 욕구와 함께 문화레저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이 등장하고, 영화 ‘죽어도 좋아’에서처럼 성적인 자기 삶을 추구하는 노인들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년이 조모/외조모로서 위대한 어머니 역할 수행에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조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조모와 모의 친밀감이 조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것은, 아동이 조모/외조모와 어머니가 이미 형성한 관계 안에서 출생하고 성장함을 나타낸다고 생각됩니다. 즉 조모/외조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조모/외조모(특히 조)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제안하신바와 같이 어린 손자녀에게 사회적 지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받거나, 1-3세대 조모/외조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조모나 외조모와 어머니와의 새로운 관계구축이나 지원망 혹은 지지망 확충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이 연구가 아동을 중심으로 본 연구이고, 또 조모-손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니 그랬겠지만 조모/외조모의 위대한 어머니(great mother)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조모/외조모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1999년 현재 기준으로 한국인 평균 수명은 74.3세(남자 67.7세, 여자 75.7세)이고 건강수명은 65세인 점을 감안하여 일생 중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손자녀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의 삶이 자칫 상대적으로 무의미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조모/외조모가 갖는 사회적(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적)지지 각각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만약 조모/외조모가 갖는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인 특성이 밝혀졌다면, 노인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삶을 위협받거나 포기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핵가족화, 개인주의화에도 불구하고 전통 사회의 가족안에서 존중되었던 조모-손자녀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연구라도 연구자의 가치관과 지향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생각해 볼 때,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손자녀

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사회적 지지체계로,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조모/외조모를 끌어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3세대가 조화롭게 서로 헌신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지향할 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